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金 穗 子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청취 문항 분석

A Study for an Analysis of English Listening Items of Korean Scholastic

Aptitude Tests(KSAT) for College Entrance

2 0 0 2 年 8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英語 英文學科

英語 學 專 攻

尹 琪 妍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金 穗 子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청취 문항 분석

A Study for an Analysis of English Listening Items of Korean Scholastic
Aptitude Tests(KSAT) for College Entrance

위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 0 0 2 年 8 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英語英文學科

英語學專攻

尹 琪 妍

尹琪妍의 文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定함

2002年 8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목 차

국문초록

1. 서론	1
2. 이론적 배경	3
2.1 청취의 중요성 및 영향 요소	3
2.1.1 청취의 중요성	3
2.1.2 청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5
2.2 청취과정	7
2.2.1 상향식 과정	8
2.2.2 하향식 과정	10
2.2.3 상호 보완식 과정	12
2.3 정보 처리 모델	14
2.4 청취과업 및 기능	16
2.4.1 청취과업	16
2.4.2 청취기능	19
3.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청해 문항의 분석	22
3.1 상향식 과정	22
3.1.1 일치하는 그림 찾기	23

3.1.2 특정 정보 찾기	24
3.2 하향식 과정	30
3.2.1 그림상황에 맞는 대화추론	30
3.2.2 특정 정보 추론	32
3.2.3 화자의 관계 및 직업유추	33
3.2.4 심리 상태 유추	35
3.3 상호보완식 과정	36
3.3.1. 지시에 근거한 추론	36
3.3.2 적절한 응답 및 전후관계 연결하기	40
4. 분석결과	45
5. 결론	53
참고문헌	57
ABSTRACT	63

표 및 그림 목차

< 그림 1 > Nagle과 Sanders의 청취이해 과정 모형	15
< 그림 2 > 청취 과정 별 문항 분류 분포	46
< 그림 3 > 청취 과업 별 문항 분류 분포	48
< 그림 4 > 청취 과업 별 문항 분류 분포	50
< 표 1 > 청취 과정 별 문항 분류	45
< 표 2 > 청취 과업 별 문항 분류	47
< 표 3 > 청취 기능 별 문항 분류	50
< 표 4 >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청취문항 종합분류	52

국문 초록

최근 영어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국제화 사회에서 세계 공용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영어가 의사소통의 중심 도구로 자리잡으면서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영어교육 중에서도 청취에 대해 살펴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청취문항을 분석한 결과를 통한 바람직한 청취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청취(listening)는 듣기(hearing)와는 달리 복잡하고 광범위한 과정이며, 청취는 언어의 4가지 능력(listening, speaking, writing, reading)중 우선 시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청취가 성인의 의사소통 활동의 45%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능력에 끼치는 전이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취 활동은 발화속도, 문어체와 구어체의 차이점, 어휘나 문법에 관한 지식, 배경지식의 활용, 감정적인 요인 등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차경환, 2000).

청취 과정은 상향식(bottom-up processing), 하향식(top-down processing), 상호 보완식(interactive processing) 과정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상향식 과정은 소리, 단어, 문법적 관계, 어휘적 의미 등의 언어 외적 자료(external sources)에 의해 언어 정보가 처리되는 것이다. 하향식 과정은 청자의 배경지식과 전체적인 기대와 같은 언어 내적 자료(internal sources)에 의해 언어 정보가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상호 보완식 과정은 언어 외적 자료를 사용하는 상향식 과정과 언어 내적 자료를 사용하는 하향식 과정을 결합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Peterson(1991)이 언급한 정보처리 이론적 관점에서 잘 이해된다. 정보처리모델은 소리가 감각기관을 통해 단기기억장치(STS: Short Term

Storage)로 들어가서 구문적 요소(syntactic constituents)로 분석되어, 의미적 단위(semantic unit)로 전환되고, 장기기억장치(LTS: Long Term Storage)의 다른 의미적 단위와 연계가 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청취 과정을 통해 들은 내용을 가지고 청자는 청취 기능을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청취 과업은 Underwood(1998)과 차경환(1995)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적용 가능한 것을 살펴보면 그림과 일치하는 것 찾기, 특정 정보 찾기, 그림 상황에 맞는 대화 추론, 특정정보 주제추론, 화자의 직업 및 관계 유추, 화자의 심리상태 추론, 지시에 근거한 추론, 적절한 응답 및 전후 관계 연결하기의 8가지로 정리된다. 또한 청취 기능은 의사소통 기능을 통한 Celce-Murcia(1991)과 Finocchiaro(1983)의 기능범주를 참고하여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적용 가능한 것을 살펴보면 정보의 교환, 설득 및 요청, 장래의 일, 개 인간의 교제, 감정의 표현, 문제의 제기와 해결과 같은 6가지로 나뉜다.

위에서 살펴본 청취 과정, 과업, 기능에 따라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청취문항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청취 과정을 년도 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상향식 과정은 점차 문항 수가 감소하였으며, 하향식 과정은 약간 증가하였고, 상호 보완식 과정은 점차 증가하다가 다소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문항 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상호 보완 식 과정의 문항 수가 가장 많았으며, 하향식과 상호 보완식 과정은 뚜렷한 구 분이 어려우므로 이 두 과정을 같이 본다면 그 문항 수에 있어 상향식에 비해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취 과업별 분석을 보면 전체 청취 문항 중 적절한 응답 및 전후 관계 연결하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정 정보 찾기와 지시에 근거한 추리가 각각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취 기능별 분석에서는 정보의 교환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개 인간의 교제와 문제해결이 각각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청취문항이 청취 내용으로부터 특정 정보

를 파악하여 찾아내는 부분적인 청취 이해 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같은 종합적인 청취 이해능력을 평가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 간의 교제와 같은 기능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청취 문항이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청취 문항의 분석 결과를 통해 청자의 청취력 향상을 위해 각 청취 과정별로 알맞은 지도 방향을 Underwood(1998)의 청취 전, 중, 후 활동에 따라 제시하였다.

1. 서 론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새로운 이론과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면서 그 내용, 방법, 평가 면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4차 교육과정¹⁾부터는 외국어 교육 강화 방안의 마련으로 인해 과거의 구조주의적 접근 방법에서 상당 부분 탈피하여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취, 말하기의 교육을 강조하여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의사소통능력이란 청자와 화자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화자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여 이에 알맞은 반응을 하여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은 현 국제화 사회에서 중요성을 지니는데, 청취는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에 있어 우선적으로 학습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부, 1995).

이 논문에서는 청취의 중요성 및 전이효과, 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취과정, 청취과업, 청취기능 등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청취 문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립 교육 평가원 (1992)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하였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대학수학에 필요한 보편적인 학업 능력을 고등학교의 언어, 수리탐구,

1) 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를 국가 수준에서 확정하여 고시하는 의도적이고 문서화된 계획으로, 학생에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가지도록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명시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계획, 학습지도, 평가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복합적인 인간중심 교육을 강조하는 제4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문교부 고시 제442호로 1981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다. 국제화, 개방화의 국정지표에 맞추어 영어과 교육과정은 ‘살아있는 생활 영어 구사력’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려는 방향에서 대화 능력을 기반으로 언어의 네 기능을 고루 신장시킬 수 있는 바탕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어 영역의 통합 교과서적 소재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고등정신능력 및 사고력을 중심으로 한 학력을 평가하는 발전된 학력고사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취지로 시행된 시험은 종전까지 언어 능력과 기능의 각 요소를 분리 식으로 평가하던 표준화 시험에서 탈피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특히 외국어영역에서는 영어의 용법에 관련된 지식의 정확성을 측정하기보다는 영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유창한가를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94학년도부터 시행된 이 시험은 청취 문항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초기 청취 문항은 전체 50문항 중 8문항이 출제되었으나, 점차 문항 수가 증가하여 1997학년도에는 17문항이 출제되었으며, 말하기 실력은 과거의 독해 문항에서 평가하던 것과는 달리 청취 문항을 통해서 평가하게 되었다. 이것은 청취가 외국어 교과과정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청취 문항을 청취 과정, 청취 기능, 청취 과업별로 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청취력의 향상을 위해 앞으로 청취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 여기서는 문항분석 외에 직접적인 점수 분포 등의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 없었으므로 실제 학생들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제언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청취의 중요성 및 영향 요소

2.1.1 청취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듣기(hearing)와 청취(listening)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여겨지지만, Berk와 Woilvin(1989:104)²⁾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지적하였다.

Hearing is a biological activity that involves reception of a message through sensory channels; as such it may be affected by all of our senses. But hearing-the active processing of all auditory stimuli is only one part of listening. Listening also involves reception, perception, attention, the assignment of meaning, and response by the listener to the message that is presented.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듣기는 단순히 감각기관에 의해 내용을 받아들이는 생물학적인 활동인 반면, 청취는 들은 내용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복잡하고 광범위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듣기가 아닌 청취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청취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청취력 즉, 청취 이해력이 필요하다. 차경환(1995)은 청취력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보통 속도의 본토인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의 효율적 향상을 위한 청취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였

2) 강용덕. (1999). 영어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듣기 평가 유형 중 특정정보 찾기를 중심으로. 서원대 교육대학원. 재인용 함.

다. 그러나 과거의 청취력은 언어의 네 가지 능력(listening, speaking, writing, reading)중에서 경시되어 왔었다. 1960년대 청각구두교수법(Audiolingualism)은 청취교육을 학습 초기 단계로 설정하였으나, 이것은 반복 문형연습을 중심으로 한 말하기 위주의 청취였기 때문에 청취학습에서의 한계성을 보였다.

그러나 Rivers와 Temperly(1978)가 밝히고 있듯이 실질적인 성인의 의사소통 활동에서 45%가 청취활동에 해당하고, 35%만이 말하기에 관련되는 것을 볼 때 언어의 네 가지 능력 중 청취력이 다른 언어 학습에 미치는 전이효과가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차경환 1995). 그러면 청취력이 다른 세 가지 언어 능력에 미치는 전이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청취력이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전이효과를 살펴보자. 청취와 말하기는 인쇄매체가 아닌 음성매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Lenneberg(1967)는 청각 장애자나 언어 장애자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말하기의 청취 의존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Krashen(1982)은 화자가 말을 하기 전 청취 위주의 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 많은 청취 자료를 습득하여 청취력을 형성하는 것은 말하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침묵기(Silent Period)이론을 통해 전이효과를 설명하였다.

둘째, 청취력이 읽기 능력에 미치는 전이효과를 살펴보자. 읽기와 청취는 언어 자료(linguistic sources)의 의미를 해독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용적인 언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Horn(1942)은 청취 능력과 독해 능력의 상관관계를 $+ .70 \sim + .75$ 로 조사하며, 청취력에 강한 사람은 독해 능력도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셋째, 청취력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전이효과를 살펴보자. 쓰기는 말하기나 읽기에 비해 청취에 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Asher, Kusudo와 Torre(1974)의 실험 연구에서는 쓰기 학습을 배제하고 청취 학습만 90시간 실시한 결과 청취 능력이 쓰기에 높은 전이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Glisan, 1986;421).

지금까지 청취력이 다른 언어능력에 끼치는 전이효과를 통해 청취의 중요성과 청취의 우선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효율적인 청취를 하기 위한 청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2.1.2 청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청취 활동에 있어 청자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요인들의 활용 정도에 따라 청취의 효율성이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차경환(2000)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분류한 청취에 영향을 끼치는 다섯 가지 요인을 아래에 열거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청자는 화자의 발화 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화자의 평균 발화 속도는 160-220wpm이지만, 휴지(pausing)의 사용 빈도에 따라 청자는 발화 속도의 차이를 느끼게 되고 이해 정도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청자가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할 때부터 실제 상황과 같은 속도로 연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자는 문어체와 구어체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문어체는 문장(sentence)을 기본으로 구성이 되지만, 구어체는 기억의 한계나 끊어 읽기(chunk)의 영향으로 인해 구(phrase)나 절(clause)을 기본으로 구성된다. 또한 문어체에 비해 구어체에서는 축약, 약화 및 생략 등의 비문법적 현상과 군더더기(redundancy)인 정지, 휴지, 수정, 삽입구(e.g.: uh, oh, well, say, I mean, I think, I guess) 등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전체 구어의 3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문어체나 규범적인 문장에 익숙해진 학습자에게 청취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청취를 위해 이러한 요소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셋째, 어휘나 문법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어휘면에서는 동음이의어(homonym), 약어(abbreviated word), 고유명사(예: 지명, 인명)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문법면에서는 문장구조나 숫자 표현, 전치사의 사용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넷째, 청자는 청취상황에 따라 알맞게 배경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배경지식은 청자가 청취 시 청취내용과 상황을 보다 잘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특히 화자와 청자가 서로 다른 문화나 관습, 생활방식 등을 가지고 있는 외국어 청취에서 청취 내용에 관한 청자의 배경지식은 효율적인 청취이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청자는 청취 시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청자가 화자의 발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그 내용에 흥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청취를 계속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속적인 청취 학습을 위해 중요하다. 또한 청자는 청취를 할 때 청취 내용을 모조리 다 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한 두 단어를 놓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듣지 못한 청취 내용은 과감히 흘려버리고 다음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자신감을 지니는 것과 모르는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모험심을 지니는 것도 청취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청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청자가 청취를 할 때 이러한 요인들을 잘 파악하여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청취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청취 과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2.2 청취과정

Clark과 Clark(1977)은 청취이해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청취과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The listener takes in raw speech and holds an image of it in short-term memory.
2. An attempt is made to organize what was heard in constitution, identifying their content and function.
3. As constituents are identified, they are used to construct prepositions, grouping the prepositions together to form a coherent message.
4. Once the listener has identified and reconstructed the prepositional meanings, these are held in long-term memory, and the form in which the message was originally received is deleted.

위의 글에 의하면 청취과정은 간단히 말해 청자가 어떠한 소리를 듣고 단기 기억에 저장 한 후, 그것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고, 전제(prepositions) 위주로 재구성하여 장기기억에 저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청취과정을 청취방법에 따라 상향식, 하향식, 상호 보완식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2.1 상향식 과정

상향식 과정(bottom-up processing)이란 청자의 언어적 능력을 기초로 하여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Morley(1991)는 상향식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his mode of the processing of language information is evoked by an external source, that is, by the incoming language data itself. Bottom-up comprehension of speech, then, refers to the part of the process in which the "understanding" of incoming language is worked out proceeding from sounds, into words, into grammatical relationship and lexical meaning, and so on. The composite meaning of the "message" is arrived at based on the incoming language data.

위의 글에 의하면 상향식 과정은 청자가 청취를 할 때 소리, 단어, 문법적 관계, 어휘적 의미 등과 같은 언어외적자료(external sources)에 의해 언어정보가 처리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상향식 과정의 청취를 통해 청자가 언어적 능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어외적자료를 통한 정보처리과정이 의식적인 통제된 과정(controlled processes)에서 벗어나 무의식적인 자동화 과정(automatic processes)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McLaughlin(1986)과 McLeod(1986)은 통제된 과정과 자동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통제된 과정에 있는 학습자는 그의 '제한적이며 일시적인 능력'으로 인해 집중적 관심(focal attention)을 가져야하며, 한번에 한 두 가지의 제한된 것을 청취한다. 이에 반해 자동화 과정에 있는 학습자는 그의 '상대적으로 영구적인 능력'으로 인

해 주변적 관심(peripheral attention)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보다 폭넓은 청취가 가능하다. 즉, 초기에 제한된 능력을 가진 청자가 청취를 할 때에는 자신의 제한된 언어능력으로 인해 들려오는 여러 가지 언어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해 집중적 관심을 가지고 통제된 과정의 청취를 하게 된다. 그러나 반복과 연습을 통해 청자가 자신의 언어능력을 상대적으로 영구적인 능력으로 향상시키면 청취했던 일부 언어요소에 있어 익숙함을 느껴 다시 그 요소들을 청취할 때에는 주변적 관심을 가지고 별다른 노력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자동화 과정의 청취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통해 청자는 청취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통제된 과정의 의식적인 청취에서 벗어나 자동화 과정의 무의식적인 청취를 할 수 있다 (McLeod & McLaughlin 1986).³⁾

그러나 Krashen(1987)은 언어요소에만 치중한 의식적인 청취는 결코 청자의 올바른 청취이해로 전이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통제된 과정과 자동화 과정의 역할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Clifford와 Higgs(1982)는 청취 시 부정확하게 받아들여진 언어요소의 반복은 화석화(fossilization)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향식 과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청취의 단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상향식 과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향식 과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3) 정보처리 절차의 기능으로서의 가능한 제2언어 수행과 언어의 형식적 성질에 대한 관심 (McLanughlin의 1983)

언어의 형식적 성질에 대한 관심	정보처리	
	통제된: 새 기능, 능력이 제한되어 있음	자동적인: 잘 훈련받은, 실용화된 기능. 능력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음.
집중적: 의도적인 관심	형식적인 규칙학습에 바탕을 둔 언어수행	시험 상황에서의 언어수행
주변적: 부수적인 관심	암시적 학습 혹은 유추적 학습에 바탕을 둔 언어수행	소통상황에서의 언어수행

2.2.2 하향식 과정

Richards(1990)에 의하면 하향식 과정(top-down processing)은 화자가 발화하는 내용에 대한 상황, 문맥, 화제 등에 관련된 청자의 배경지식을 통해 들은 내용을 추론하고 앞으로 들을 내용에 대한 예측을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p51). 또한 Morley(1991)는 하향식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Here the processing of language information comes from an internal source. That is, it is evoked from a bank of prior knowledge and global expectations. These include expectations about language and expectations about the "world". Learners bring to bear on the task of "understanding" the incoming speech, prior information which allows them to predict on the basis of context- both the preceding linguistic context and the situation-and-topic and setting-and-participants context-what the incoming "message" at any point can be expected to be and how the "pieces" fit into the "whole".

위의 글에 의하면 하향식 과정은 청자가 청취를 할 때 청자의 배경지식과 전체적인 기대와 같은 언어내적자료(internal source)에 의해 언어정보가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배경지식이란 청자가 청취를 할 때 그 내용 파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script"(Schank & Abelson: 1977), "frame"(Minsky: 1975), "schemata"(Rumelhart: 1980, Carrell & Eisterhold: 1983)등의 용어로 사용되었다. Carrell과 Eisterhold(1980)는 배경지식을 내용배경지식(content schemata)과 형태 및 구조배경지식(formal schemata)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내용배경지식은 문화적 지식, 화제에 대한 친숙함, 그 분야에 해당하는 사전경험 등에 관한

것을 의미하며, 형태 및 구조배경지식은 자료유형(text types), 수사적 대화(rhetorical conversations), 산문(prose)의 구조적 조직 등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하향식 과정에서는 청자의 배경지식을 청취의 기본요소로 보고있다. 청자가 배경지식을 청취에 활용함으로써 청자는 화자가 전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청취상황 등에 대한 화자가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외국어 청취에 있어서 배경지식의 역할 및 활용은 청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모국어에 의한 배경지식 외에 화자의 서로 다른 문화나 관습, 생활방식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자가 화자에 대한 올바른 배경지식을 가져야한다. 그러나 올바른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향식 과정의 청취는 실질적인 청취내용을 이해할 때 오히려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Bloke, 1986; Kasper, 1984)⁴⁾. 그러므로 청자는 청취를 할 때 상향식 과정이나 하향식 과정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올바른 청취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상향식 과정과 하향식 과정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상호 보완식 과정(Morley, 1991)에 대해 다음 장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4) Peterson, P. W. (1991). A Synthesis of Methods for Interactive Listening. Marianne Celce-Murcia (2nd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MA: Heinle & Heinle Publishers. 106-122. 에서 재인용함.

2.2.3 상호 보완식 과정

상호 보완식 과정(interactive processing)은 언어외적자료를 사용하는 상향식 과정과 언어내적자료를 사용하는 하향식 과정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상호 보완식 과정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각구두 교수법(Audiolingualism)시기의 청취는 말하기를 위한 문형연습을 강조한 것으로써 청자는 끊임없는 문법적 감시(monitor)를 사용하여 언어요소들을 정확하게 듣고자 하는 상향식 과정의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의사소통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시기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점차 의사소통은 문법적 요소에 의한 정확성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청취활동은 언어의 네 가지 능력을 고루 적용하여 원할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즉, 초기 청각구두 교수법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문법적 감시가 이루어졌으며, 배경지식을 사용하여 화자가 발화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상향식 과정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향식 과정이 나오게 되었으며 점차 이 두 과정은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상호 보완식 과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Peterson(1991)은 상호 보완식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op-down and bottom-up processes interact, so that lack of information on one level can be compensated for by checking against information on the other level. For example, proficient listeners use their knowledge of lexis and topic to interpret the confusing sounds in the speech stream and to aid them in word recognition. On the other hand, they also use their basic decoding skills to check the

progress of the argument and to determine whether the discourse is going in the direction they had predicted.

위의 글에 의하면 상호 보완식 과정은 청자의 어휘 및 문법 지식을 사용하여 청취하는 상향식 과정과, 화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청취하는 하향식 과정의 두 가지 방법이 서로 보완되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제한된 언어능력을 지닌 청자가 주로 이용하는 소리(sounds), 단어(words), 구(phrases) 등을 인식하는 상향식 과정의 기법과, 숙련된 언어능력을 지닌 청자가 주로 이용하는 다음에 나올 청취내용에 대한 기대(listener's expectation), 원문 및 세계의 본질 이해(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ext and the nature of the world)와 같은 하향식 과정의 기법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최근 청취경향은 과거에 비해 두 가지 언어과정을 이해하여 통합 적용하는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청취를 하기 위해 청자는 대화 및 담화 시 들려오는 발화를 다양한 과정을 적용하여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상향식 과정과 하향식 과정을 결합한 상호 보완식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효과적인 청취를 위해 정보처리모델을 통해 청취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3 정보처리모델

Kintsch과 VanDijk(1978)는 정보처리모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Language comprehension in listening has been described as a series of steps of information processing which take advantage of both top-down and bottom-up operations. (Peterson 199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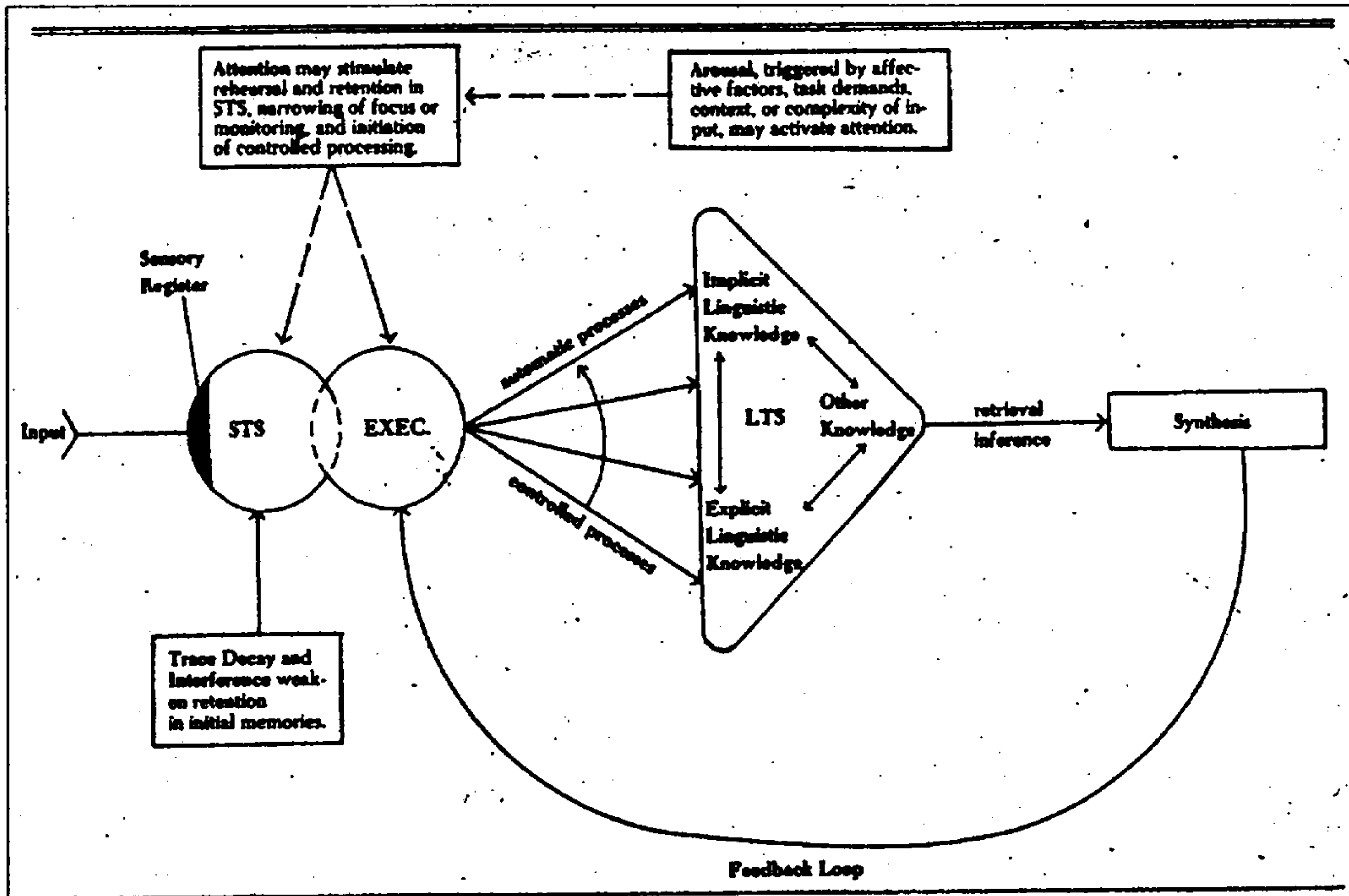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취이해과정이 부분적인 청취⁵⁾를 요구하는 상향식과 전체적인 청취⁶⁾를 요하는 하향식 과정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 있는 정보처리 이론적 관점에서 잘 이해된다.

이제 청취이해과정을 Nagle과 Sanders(1986)의 그림을 참고하여 정보처리적 관점에 의해 살펴보도록 하자. 가공하지 않은 발화(raw speech)가 청각자료로서 감각기관으로 가게 된다. 이것은 다시 감각기관에서 단기 기억장치(STS: Short Term Storage)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단기 기억⁷⁾은 한번에 7~12 단위(bit)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는 능력의 제한이 있으므로 청자가 가능한 많은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정보단위형성(chunk, grouping)을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덩어리의 정보단위의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의성어나 대명사, 부사, 전치사 등의 기능어(function word)는 과감히 흘려버리고 청취내용 파악 시 꼭 필요로 하는 정보들 즉, 의미 파악을 위한 내용어(content word)를 중심으로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 단위들은 구문적 요소(syntactic

5) 특정 정보에 초점을 맞춘 청취활동이며 전체의 흐름이나 중심 주제보다는 특정 부분 즉, 자신이 필요로 한 정보를 알아내는 청취과정이다.

6) 전달된 정보의 배경, 전체 주제,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거나 다음 내용을 추론하는 것이 청취 목표이다.

7) 단기 기억이란 인식된 언어적 요소들이 수초 또는 수분 동안 지속되는 메아리로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림1> Nagle과 Sanders 의 청취이해 과정 모형 (Peterson, 1991, p110)

constituents)로 분석이 되어 의미적 단위 (semantic unit) 즉, 명제(proposition)로 전환되고, 장기기억장치(LTS: Long Term Storage)의 다른 의미적 단위와 연계된다.

단, 단기기억에서의 명제가 장기기억의 명제와 연계될 만한 것이 없다면 장기기억장치가 작동되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명제를 되찾고 조사하게 된다.

지금까지 정보처리모형을 통해 청취이해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청취이해과정을 통해 청취과업 및 기능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4 청취과업 및 기능

이제 청취과정을 살펴본 것에 이어서 청취과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자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화자가 의도하는 기능을 파악하고 과업을 성취하는 것으로 청취목적은 달성한다. 그러면 청취과업에 대해 살펴본 후, 청취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2.4.1 청취과업

청취과업이란 Johnson(1979)이 제시한 'task'라는 용어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청자가 청취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청취기능을 파악하고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청취활동이 단순히 청취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한 언어기능을 파악하고 과업을 성취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차경환 2000).

학자마다 과업에 대한 분류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뒤에서 거론할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청취문항의 분석에서 보다 많은 부분의 적용이 가능한 Underwood(1989)와 차경환(1995)의 과업분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Underwood는 과업을 분류하기에 앞서 청취지도 단계를 청취 전 활동, 청취 중 활동, 청취 후 활동의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청취 전 활동은 청자가 청취 전 시간과 장소, 화제, 사회적 관계 및 심리적 태도에 따르는 사전 지식을 이용하여 진행될 대화내용을 미리 예상하여 청취 중 활동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청취 중 활동은 청취 전 활동에서 제기된 예상을 바탕으로 직접 들은 내용을 검증해 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청취내용의 이해를 중심으로 청취기능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해야 하므로 청취 중 활동의 선택은 중요하다. 따라서 Underwood는 청취 중 활동 동안 청자가 청취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

도록 다음과 같은 청취 중 활동유형을 제시하였다.

- 1) 사람이나 물건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 표시하기
- 2)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 그리기
- 3) 들은 순서대로 그림 나열하기
- 4)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
- 5) 지시를 듣고 지도 등에서 해당 부분 찾기
- 6) 내용을 듣고 빈칸 메우기
- 7) 앞으로 들게 될 내용을 예측하기
- 8) 날씨, 뉴스 및 토론 등에서 특정 세부내용 듣기

마지막으로 청취 후 활동이란 청취가 완전히 끝난 후에 실시하는 해당 청취 자료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는 청자의 이해여부와 청취 중 활동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반응 즉, 재입력(feedback)을 부여함으로써 실패원인을 파악하고 보다 나은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청취 후 활동은 청자가 청취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토의하여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청취 중 활동보다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청자의 내재적인 동기 유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단순한 청취확인용 질문 이상의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경환은 화자와 청자가 모두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은 EFL(English Foreign Language)환경에서는 청자 위주의 일방향 청취(one-way listening)에 중점을 둔 다음과 같은 청취 지도를 제시하였다.

- 1) 구두로 주어진 설명에 따라 그림 그리기
- 2) 빈칸 메우기 연습
- 3) 추리게임을 통한 청취연습
- 4) 도표에 비어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청취연습
- 5) 지도상에서 과업수행을 통한 청취연습
- 6) 청취내용 메모하기를 통한 청취연습
- 7) 그 밖의 과제해결

이러한 청취과업을 Underwood와 차경환의 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청취문항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재정리하면 다음의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1) 그림과 일치하는 것 찾기
- 2) 특정 정보 찾기
- 3) 그림 상황에 맞는 대화추론
- 4) 특정 정보, 주제추론
- 5) 화자의 직업 및 관계 유추
- 6) 화자의 심리상태 추론
- 7) 지시에 근거한 추론
- 8) 적절한 응답 및 전후 관계 연결하기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청취과업과 관련된 청취기능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4.2 청취기능

청취 기능을 살펴보기에 앞서 의사소통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청취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일부분이며 청취를 잘 한다는 것은 화자가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응함으로써 청자와 화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른 언어행위를 지칭하며, 의사소통기능은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기능, 사실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능, 정신적 또는 창조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⁸⁾

학자마다 기능에 대한 분류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뒤에서 거론할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청취문항의 분석에서 보다 많은 부분의 적용이 가능한 Celce - Murcia(1991)와 Finocchiaro(1983)의 기능분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Finocchiaro의 기능적 범주에 대해 알아보자. 그는 기능범주에 대해 개인적, 상호적, 지도적, 관계적, 상상적인 것의 다섯 가지로 다루었다.

- 1) 개인적: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분류하고 사고나 느낌을 표현하는 기능
- 2) 상호적: 이상적인 사회적, 직업적 관계를 지속하거나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 3) 지시적: 지시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기능
- 4) 관계적: 현재나 과거의 사물, 행동, 사건, 사람에 대해 보도 또는 이야기하는 기능
- 5) 상상적: 문제 해결, 토론, 창조를 하기 위한 기능

8) 교육부. (1995). *고등학교 외국어과 교육과정해설(I): 공통영어, 영어I·II, 영어독해, 영어회화, 실무영어*. 대한교과서, p 61.

또한 Celce-Murcia는 개인간의 교제, 정보의 교환, 의견발표, 감정의 표현, 설득, 문제제기와 해결, 장래의 일의 일곱 가지로 기능범주를 분류하였다.

이러한 Celce-Murcia와 Finocchiaro의 기능범주를 참고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청취문항에 적용 가능한 청취기능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여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1) 정보의 교환

: 주어진 환경에서 사람, 사건, 사물에 대해 보도 및 설명을 하기 위한 기능

- 공동체, 집, 학교, 교실에서 사람이나 사물의 소재 파악하기
- 사람, 사물의 묘사하기
- 언어 항목이나 임의의 사물을 정의하기
- 행동이나 사건에 대한 사실을 보도하거나 설명하기

2) 설득 및 요청

: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시도를 하거나 지시하기 위한 기능

- 제안, 제의, 지도하기
- 주문하기, 충고 및 경고하기
- 설득, 격려, 단념시키기
- 허락 및 거절하기

3) 장래의 일

: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한 희망 및 가능성 등을 표현하기 위한 기능

- 희망, 소망, 욕구 등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하기
- 의도, 목표, 계획 등을 이끌어내서 설명하기
- 미래에 대해 추측 및 예측하기
- 어떤 것을 하려는 가능성 및 사전 능력 등에 대해 토론하기

4) 개인간의 교제

- : 사람들 상호간에 이상적인 사회적 직업적 관계를 지속하고 성립하도록 하기 위한 기능
- 소개하기, 자신을 드러내기
- 화자의 말에 대한 반응 보이기

5) 감정의 표현

- : 자신이나 타인의 느낌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 및 설명을 하기 위한 기능
- 사랑, 기쁨, 유쾌, 행복, 놀라움, 좋아함, 만족, 싫어함, 실망, 근심, 고통, 화남, 고뇌, 공포, 걱정, 비애, 성남, 성가심의 감정표현, 지적인 것, 피로, 졸림, 추위, 따뜻함 등의 느낌 드러내기

6) 문제의 제기와 해결

- : 관련 요소에 대한 토론, 제시, 의견 확장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능
- 이야기나 대화의 근본적인 결말이나 시작을 제시하기
-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 해결하기

지금까지 위와 같은 여섯 가지의 청취기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들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청취 문항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3.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청해 문항의 분석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⁹⁾은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과거의 시험이 영어에 관련된 지식 즉, 문법평가에 큰 비중을 두었던 것에 반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언어의 네 가지 능력을 고루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1994년도부터 시행된 이 시험은 청취문항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것과 구별된다. 청취문항은 대화나 담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재는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19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청취문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국립교육평가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1997년도 시험부터 과거의 독해문항을 이용한 말하기 능력평가에서 벗어나, 청취문항을 통한 말하기 능력의 평가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문항 수도 8문항에서 17문항으로 증가하여 수능에서의 청취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하였던 청취과정, 청취과업 및 기능을 통하여 수능청취 문항을 분석하겠다.

3.1 상향식 과정

상향식 과정의 문항은 청자의 언어능력을 통하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상향식 과정을 일치하는 그림찾기와 특정 정보 찾기의 두 가지 청취과업과 정보의 교환, 설득 및 요청과 장래의 일의 세 가지 청취기능으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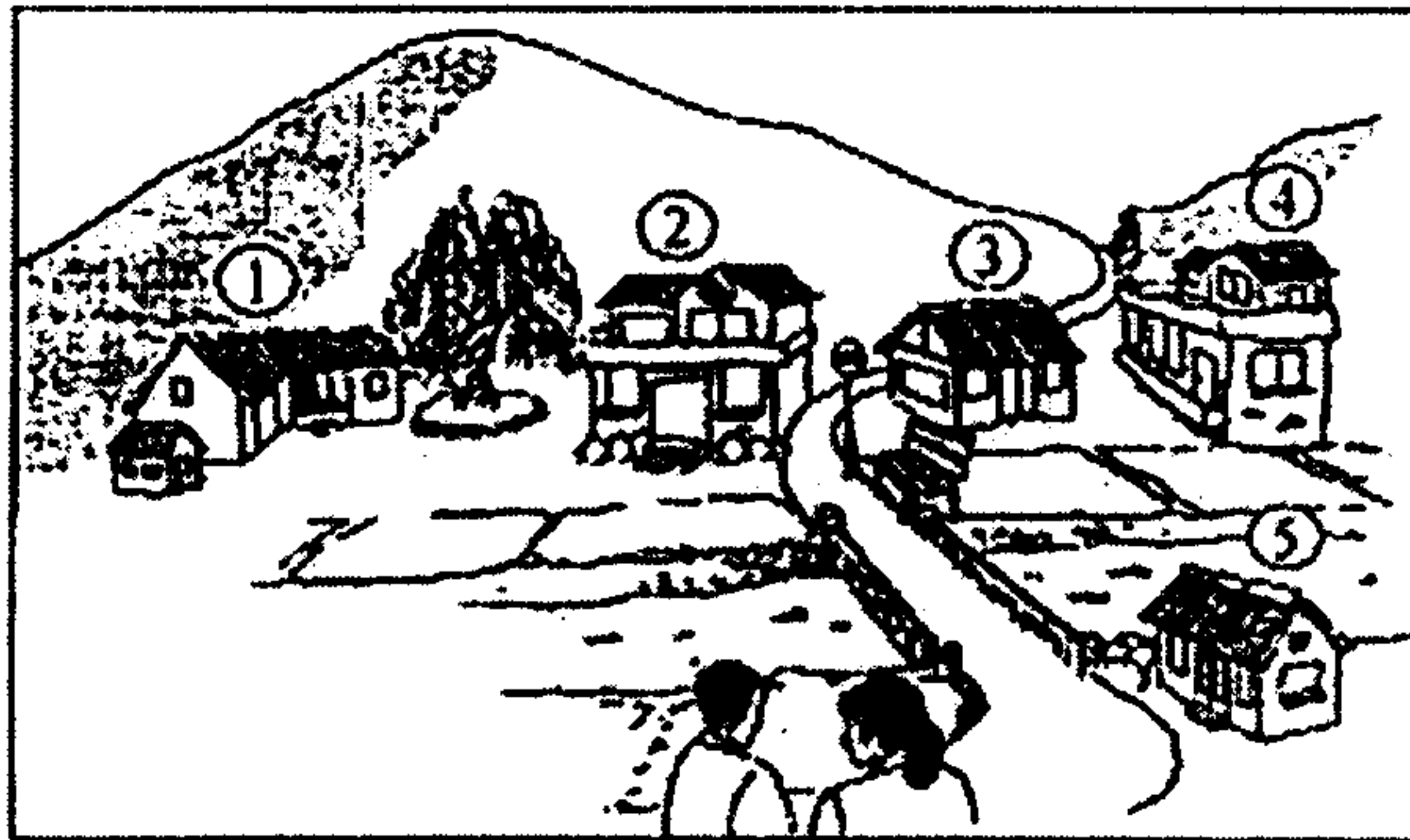
9) 앞으로 나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은 줄여서 수능이라고 하기로 함.

3.1.1 일치하는 그림찾기

일치하는 그림찾기는 대화를 듣고 설명하는 것을 그림에서 고르는 문항으로 정보의 교환 기능을 가지고 있다.

01년도 1번

대화를 듣고 여자가 찾는 집을 고르시오.



Recorded

M: Sally, here we are. This is my village.

W: Min-su, what a beautiful village! I've always wanted to see the Korean countryside. So which house is yours?

M: Over there, across the bridge.

W: Which one? There are four houses.

M: Do you see the big tree?

W: Yes.

M: The house next to the big tree is mine.

W: You mean the two-story house?

M: No, the one-story house.

W: I've got it.

일반적인 그림문제로서 수능에서 매년 한 문항씩 나오는 유형이다. 이 문항은 대화를 듣고 집을 찾는 것으로 위치, 방향에 대한 개념인 across나 next to 등을 잘 들어야 풀 수 있다. 실마리인 across the bridge에서 big tree와 the house next to the big tree로 단계적으로 드러나므로 순서대로 청취한다면 쉽게 답할 수 있다. 또 다른 문항스타일로는 대화를 듣고 보기에서 동작을 고르는 유형, 여러 개의 그림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유형 등이 있다. 이러한 문항들은 직접적으로 실마리가 드러나서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이며 설명해주는 것만을 듣고 풀 수 있는 문제이므로 상향식 과정이며, 청취기능에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물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정보의 교환에 속한다.

3.1.2 특정 정보 찾기

특정 정보 찾기의 청취기능은 정보의 교환, 설득 및 요청과 장래의 일의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 정보의 교환의 기능을 지닌 문제유형을 살펴보자.

99년도 5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를 고르시오.

- | | | |
|---------------|-------------------|---------------|
| 1) restaurant | 2) bookstore | 3) playground |
| 4) classroom | 5) teacher's room | |

Recoded

W: Today's class was very interesting, Mr. Baker.

M: Oh, really, Su-jin?

W: Yeah, I liked the way you explained how plants bear fruit.

M: I'm glad you liked it. Will you do me a favor?

W: What is it, Mr. Baker?

M: Please take these books to the teachers' room.

W: Sure, anything else?

M: Yes. In fact, I've got some work to do here in the classroom. So can you close the door when you leave?

W: I'd be happy to. Bye, Mr. Baker.

M: Thanks. See you in class tomorrow.

위 문항은 대화하는 장소를 고르는 유형으로 실생활에 있어 대화 장소에 따라 적절한 대화를 구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문에서 비행기나 세관 등의 내용을 들을 수 있다면 대화장소는 공항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대화에서 나오는 실마리 단어를 잘 듣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첫 부분에서 class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학교관련 장소라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는 teacher's room과 classroom의 두 가지를 들을 수 있는데, 이 중 here in the classroom을 들었다면 전반적 청취보다는 부분적 청취를 통해 간단히 교실에서의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청취기능으로 보면 특정장소를 설명해주는 것이므로 정보의 교환이다.

01년도 9번

대화를 듣고, 여자가 전화를 건 목적을 고르시오.

- 1) 안부를 전하려고
- 2) 만날 약속을 하려고
- 3) 예약을 취소하려고
- 4) 사무실 위치를 알려고
- 5) 상담을 연기하려고

Recoded

[The telephone rings.]

M: Hello!

W: May I speak to Mr. Kim?

M: Speaking.

W: Hi, it's Judy.

M: Hi, Judy. How are you doing these days?

W: I'm fine. Thanks. Are you free this afternoon?

M: Is there something I can help you with?

W: Yes, there is. But it's difficult to explain over the phone.

Can see you in your office for a moment?

M: Well, I don't think I'm available in the afternoon.

How about ten o'clock tomorrow morning?

W: That's fine with me. Thank you.

M: OK. See you then.

위 문항은 대화를 듣고 여자가 전화를 건 목적을 고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화대화는 상대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화보다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 그러나 전화대화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므로 일정한 형식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 문항의 대화 첫 부분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는지를 묻는다. 이에 남자가 도울 일이 있는지를 묻자 여자는 전화상으로는 어려우니 사무실로 가도 될지를 물은 후 만날 약속을 정한다. 그러므로 답은 여자가 남자를 만날 약속을 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 된다. 청취기능은 특정목적에 고르는 것이므로 정보의 교환에 속한다.

둘째, 설득 및 요청의 기능을 지닌 문제 유형을 살펴보자.

98년도 6번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권하는 것을 고르시오.

- 1)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할 것
- 2) 점심을 거르지 말 것
- 3) 운동을 많이 할 것
- 4) 스트레스를 받지 말 것
- 5)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

Recoded

W: Paul, let's go get some lunch.

M: Yeah. I'm so hungry my stomach hurts.

W: Your stomach hurt?

M: Yeah, it's been hurting for a month.

W: Really? Have you tried some medicine?

M: Yes. I have. But it didn't work.

W: Have you been under a lot of pressure lately?

M: Well, a little bit.

W: Paul, you'd better go see a doctor.

M: Maybe I will. But I think it's nothing. You know, I feel better when I eat.

이 문항은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권하는 것을 고르는 것이다. 남자가 배가 고프면 위가 아프다고 하자, 여자는 약을 먹었는지의 여부와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를 묻고 병원에 갈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여자가 말한 "Paul, You'd better go see a doctor."라는 말을 듣고, go see a doctor가 병원에 간다는 뜻을 안다면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이라는 답을 고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문항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청취보다는 부분적인 내용파악의 청취를 요구하므로 상향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You'd better + 동사 원형이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미를 지닌 숙어라는 것을 안다면 청취기능이 설득 및 요청이라는 것도 설명된다.

셋째, 특정 정보 찾기 청취과업 중 장래의 일의 기능을 지닌 문제유형을 살펴보자.

01년도 5번

대화를 듣고, 차가 멈춘 뒤 여자가 할 일을 고르시오.

- 1) 기름을 넣는다
- 2) 점심을 먹는다

- 3) 사진을 찍는다
- 4) 할머니를 만난다
- 5) 화장실에 간다

Recoded

W: Dad,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o grandma's house?

M: About an hour.

W: Oh, no! Can we stop for a moment at a restaurant or something?

M: Are you hungry? We'll be having lunch at grandma's.

W: No, I mean... Look! There's a gas station over there.

M: We have enough gas.

W: Dad, I need to go to restroom. There's probably one at the gas station.

M: You want to use the restroom? OK, then I'll stop there.

이 문항은 대화를 듣고 할일 고르기의 유형으로 여기서는 차가 멈춘 뒤 여자가 할 일을 고르는 것이다. 처음에 여자는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지막에서 "Dad, I need to go to restroom."이라고 말하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한다. 이 문항은 마지막 부분의 말을 듣고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상향식 과정의 청취문항을 두 가지 과업과 그에 따르는 각각의 청취기능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제 하향식 과정의 문항을 청취과업과 그에 따르는 청취기능에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하향식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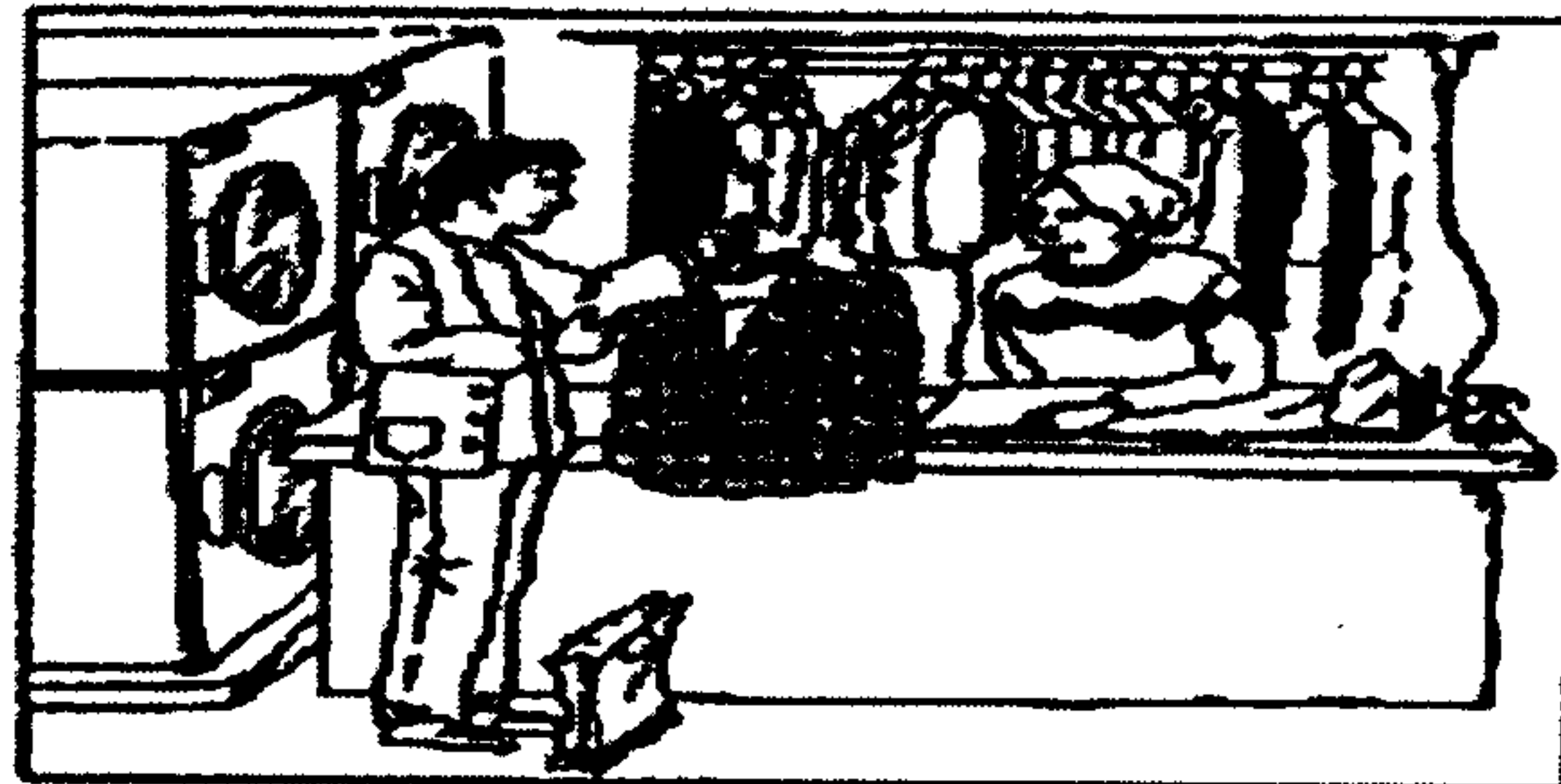
하향식 과정은 그림상황에 맞는 대화추론, 특정정보 및 주제추론, 화자의 관계 및 직업 유추, 화자의 심리상태 유추의 네 가지 청취과업과 정보의 교환, 개인간의 교제, 감정표현의 세 가지 청취 기능으로 나눈다.

3.2.1. 그림상황에 맞는 대화추론

그림상황에 맞는 대화추론의 청취과업은 하향식 과정의 그림문제 유형이며 상향식 과정에서 다루었던 그림문항과는 들은 것을 바탕으로 대화를 추론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대화에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답을 고르는 문항이므로 청취기능은 정보의 교환에 속한다.

02년도 13번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1) 2) 3) 4) 5)

Recoded

1) M: Would you make three copies of this letter?

W: No Problem. I'll do it right away.

2) M: Let's take a break under this tree. It's too hot.

W: Why don't you take your jacket off?

3) M: Come on in. Let me take your coat.

W: Thank you. I'm glad I could make it to the party.

4) M: I'm afraid this isn't as clean as expected.

W: Oh, we're sorry. Can I take a look?

5) M: When should I take these pills?

W: You must take them after every meal.

이 문항은 그림을 보고 청취내용 중 알맞은 것을 상황에 맞게 추론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coat나 clean 같은 단어를 통한 부분적 청취가 가능하지만, 그림을 보면 세탁기가 있고 옷이 걸려있는 것으로 세탁소 그림임을 알 수 있으며 세탁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배경지식을 생각하여 전반적 청취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답지의 보기를 보면 3번은 첫 부분에 코트를 달라고 하지만 끝까지 내용을 들어보면 단지 파티에 가서 옷을 받아주는 대화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함정으로 볼 수 있다. 4번 보기는 남자가 옷이 기대한 만큼 깨끗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하자 여자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어디 보자고 하는 것으로 보아 세탁소에서의 대화임을 알 수 있으며 답을 고를 수 있다.

3.2.2 특정 정보 추론

특정 정보 추론은 청취기능으로 보면 특정정보에 대해 설명하는 정보의 교환이며,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듣고 청자의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추론하는 것이므로 하향식 과정에 속한다.

99년도 3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Susan에 대해 화가 난 이유를 고르시오.

- 1)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 2) 불평을 자주해서
- 3) 수업 시간에 늦어서
- 4) 박물관에 혼자 가서
- 5) 방 청소를 하지 않아서

Recoded

M: Susan's always making me angry.

W: Why? What happened this time?

M: Well, you remember she offered to help me with my science report?

W: Yeah, I do. Wasn't it when we went to the museum together on Friday? Susan promised to visit your house on Saturday, didn't she?

M: Right. But she never came by.

W: Wow, didn't she call you?

M: Not even once. So, I tried to get in touch with her, but I couldn't. And on Monday when I saw her at school, all she said was sorry. That's all.

이것은 대화를 듣고 이유 고르기의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하향식 과정에서 많이 보이는 것으로 청취내용 중 특정정보를 듣고 배경지식을 이용해 추론하여 풀어나가는 것이다. 여기서는 남자가 Susan에 대해 화가 난 이유를 고르는 것으로 “Well, you remember she offered to help me with my science report?”와 “But she never came by.”와 “Wow, didn't she call you?” 등을 청취하였다면 여자가 연락도 없이 약속도 지키지 않아서 화가 났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 문항도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취기능은 정보의 교환에 속한다.

3.2.3 화자의 관계 및 직업 유추

화자의 직업 및 관계 유추의 유형은 대화하는 두 사람의 관계나 직업이 무엇인지 들은 것을 통해 추론해야 하며 자신과 화자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청취기능은 개인간의 교제에 속한다.

01년도 2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직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1) 테니스 선수
- 2) 집배원
- 3) 식당 종업원
- 4) 통역사
- 5) 디자이너

Recoded

M: Excuse me. Are you Mary Smith?

W: Yes, I am.

M: This package is for you.

W: Oh, it's tennis racket I ordered on the internet.

M: Do you play tennis a lot?

W: Yes, I do. That's why I need a good racket.

M: Will you sign here, please?

W: Sure, thanks for delivering it so quickly.

M: No problem. We do our best to make our customers
happy. I have to make another delivery. Have a nice day.

W: Thanks, bye.

이 문항은 남자의 직업을 고르는 것으로 “This package is for you.”나 “Will you sign here, please?” 와 “Sure, thanks for delivering it to quickly.”와 같은 여러 문장의 실마리를 통한 부분적 청취로 답이 집배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ennis racket이나 play tennis와 같은 단어는 답지의 보기 중 테니스 선수에 대한 함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전반적 청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 문항은 수능이 청자가 의사소통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제생활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신분을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3.2.4 심리 상태 유추

화자의 심리상태를 추론하는 유형의 청취기능은 감정표현에 속한다.

02년도 11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 1) delighted 2) frightened 3) lonely
4) relaxed 5) worried

Recoded

M: Molly, don't you know our group project is due tomorrow?

W: Yes, I do. I did my best.

M: I'm not sure if we'll get a good grade. I've taken a look at the part you prepared and found a lot of mistakes.

W: Oh, really?

M: Look at this. The year should be 1979, not 1997.

W: Oh, that's right. I'm sorry. And?

M: Well, here it should be Ms. Baker, not Mr. Baker.

W: No big deal. I'll fix them. I can't believe I made such mistakes.

M: That's not all. There are many more. And the truth is we just don't have enough time. We can't afford to get a poor grade just because of such carelessness.

이 문항은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는 것으로 남자는 프로젝트에서 실수가 많이 발견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에 반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실마리가 되는 문장은 found a lot of mistakes와 "And the truth is we just don't have enough time."과 "We can't afford to get a poor grade just because of such carelessness."등이 있다. 이 문항에서는 정답인 worried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청자는 실마리가 되는 문장을 바탕으로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

3.3 상호 보완식 과정

상호 보완식 과정은 지시에 근거한 추론과 적절한 응답 및 전후관계 연결하기의 두 가지 청취과업과 정보의 교환, 문제해결, 개인간의 교제의 세 가지 청취기능으로 나눈다.¹⁰⁾

3.3.1 지시에 근거한 추론

지시에 근거한 추론의 청취과업은 정보의 교환과 문제해결의 청취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정보의 교환의 기능을 지닌 문항 유형을 살펴보자.

10) 다른 논문에서는 지시에 근거한 추론을 하향식 과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이 논문에서는 지시에 근거한 추론을 부분적 청취뿐만 아니라 전반적 청취도 필요하다는 국립교육평가원(1997)의 분류에 근거하여 상호 보완식 과정으로 분류하였다.

98년도 8번

다음 말을 듣고,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고르시오.

- 1) desert 2) beach 3) meadow
4) lake 5) mountain

Recoded

People do not normally live in this area. There are only a few plants here. You can find few animals except for snakes and lizards. It is a large area of sand, and is usually very hot and dry. When you travel through area, you should always carry plenty of water. Otherwise, you may die of thirst. You can find the largest one in North Africa.

이것은 담화나 대화를 듣고 내용파악하기의 유형으로 여기서는 담화를 듣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르는 것이다. 청자는 snakes, lizards, sand, hot, dry의 단어를 듣거나, "When you travel through area, you should always carry plenty of water." 나 "Otherwise, you may die of thirst."같은 표현을 통한 부분적 청취를 하고, 사막이 뱀, 도마뱀 등이 살고, 덥고 건조한 곳이라는 배경 지식을 통한 전반적 청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지시에 근거한 추론의 문제해결 청취기능을 지닌 문항유형에 대해 살펴보자.

02년도 3번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해야 할 액수를 고르시오.

1) \$3 2) \$6 3) \$9 4) \$10 5) \$12

Recoded

W: Excuse me, but when do you close?

M: 8 o'clock.

W: Good! Three hours left. And how much is admission?

M: It's 6 dollars for an adult. How many would you like?

W: Two. My daughter and me. How much is it for a kid?

M: It depends. How old is she?

W: She's ten.

M: Then she'll get a 50% discount. So \$3 for your child.

W: That's a good idea. Here's ten.

M: And here's your change. Enjoy your swim.

이것은 대화를 듣고 물건값 등으로 지불할 액수 고르기의 유형이다. 이 문항은 여자가 지불할 액수를 고르는 것으로 여자는 입장료가 얼마인지 묻고있다. 남자는 어른은 6달러이고 아이는 50%할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엄마와 아이의 입장료는 어른 한 사람과 아이 한 사람으로 계산하여 보면 총 9달러가 된다. 이러한 숫자를 듣는 부분적 청취와 그 개념을 파악해, 빠른 시간 내에 돈을 계산을 하는 배경지식을 이용한 전반적인 청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취 기능을 문제해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또 다른 문제해결 유형 중 하나인 시간을 계산하는 문항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99년도 4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만날 시각을 고르시오.

- 1) 4:00 2) 4:30 3) 5:00
4) 5:30 5) 6:00

Recoded

[Phone rings; pick up]

W: Hello.

M: Hey, Mary. What are you doing?

W: Nothing special. Why?

M: Why don't we go see a movie? I have two tickets for
Titanic.

W: That sounds great! When does the movie begin?

M: At six.

W: Well, how about meeting an hour and a half early? I'll
treat you to dinner at the restaurant we went to last
week.

M: That'll be nice. What time is it now?

W: Four o'clock.

M: Then, I'll meet you in half an hour.

W: OK, see you then.

이것은 청취기능이 문제해결인 것으로 앞의 돈의 액수를 계산하는 유형과 시간 고르기의 유형이다. 이 문항은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약속시간을 고르는 문제이다. 남자와 여자는 6시 영화를 보기 위해 "Well, how about meeting an hour and a half early?"라고 하여 한 시간반 전에 만나자고 한다. 현재시간은 4시이므로 "Then, I'll meet you in half an hour."를 들었다면 약속시간은 30분 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약속시간은 4시 30분이 된다. 청자가 시간에 관련된 표현인 hour and a half가 한 시간 반이라는 것과 half an hour이 30분이라는 것을 알면 쉽게 답할 수 있다. 이 문항은 시간표현에 대한 부분적 이해와 약속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요구하므로 상호 보완식 과정에 속한다. 시간에 대한 것은 실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충분한 청취활동을 통해 시간에 대한 표현을 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전치사의 사용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to, after, past, half, quarter등의 표현이 나오면 주의를 기울여서 청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시 45분입니다 라는 표현을 It's five forty-five라고 하면 알아듣기 쉽지만, It's a quarter to five라고 하면 잘 들리지 않아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이런 경우이다.

3.3.2 적절한 응답 및 전후관계 연결하기

적절한 응답 및 전후관계 연결하기의 청취기능은 개인간의 교제와 문제해결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개인간의 교제에 대해 살펴보자.

97년도 16번

대화를 다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oman: _____.

- 1) I just can't get up 7:30
- 2) My mother wakes me up at 7:00
- 3) I have to study for the entrance exam
- 4) Well, I'm glad you've switched schools
- 5) Sorry to hear that. It'd be nice if you could

Recoded

M: Every morning I have to get up so early.

W: Oh, why is that? I wake up at 7:30.

M: You're lucky. I have to leave my home at 5:30 to get to school on time.

W: That's too bad. Maybe you should move closer to your school or change schools.

M: I wish that were possible but it's not.

W: _____.

이것은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는 자신의 집이 학교에서 멀어서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에 반해 여자는 집이 가까운 것을 부러워하는 상황이다. 대화에서 "You're lucky." 와 " I have to leave my home at 5:30 to get to school on time." 을 들었다면 남자가 부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의 상황에 동정을 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문항은 상황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 표현을 이해하

는 부분적 이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 배경지식이 필요하므로 상호 보완식 과정에 속한다.

또 다른 유형으로 상황설명을 듣고 상대방에 말에 대해 반응하는 문항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99년도 17번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Mr. Smith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llo, Mr. Smith _____.

- 1) I'm telling you not to be late
- 2) What time shall we meet?
- 3) Is it likely to rain tomorrow?
- 4) Can I take a message?
- 5) I'm terribly sorry to wake you

Recoded

M: Suppose you are leaving on a long trip tomorrow.

Because you have to leave early in the morning, you think you'd better call Jane, your best friend, and say goodbye to her tonight. But you wonder if it's OK to call since it's too late at night. It's already past eleven o'clock. You finally decide to call, but father, Mr. Smith, answers. It's clear that he's been in bed.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you say to him?

W: Hello, Mr. Smith _____.

이 문항은 상황에 알맞은 반응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유형으로 그 내용을 보면 여자가 긴 여행을 떠나기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작별인사를 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 망설이는 것이다. 이 문항은 앞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전화 예의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부분적 청취의 실마리가 되는 문장은 "Because you have to leave early in the morning, you think you'd better call Jane."이다. 그러나 밤늦게 전화를 하는 것은 실례되는 일이므로 그러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청취를 한다면 적절한 답은 주무시는데 깨워서 죄송하다는 것이 된다.

둘째, 청취기능 중 내용의 결말부분을 제시하는 문제해결의 문제유형에 대해 살펴보자.

99년도 16번

다음 말을 듣고,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refore, _____.

- 1) You should listen to your parents
- 2) You should be at school on time
- 3) You should learn how to use a computer
- 4) You should go to work by bus
- 5) You should exercise long enough at home

Recoded

Today, I'd like to talk about the future of education and our daily lives. As you know, the computer has changed our lives a lot. By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education will be quite different from now. For example, with computer technology, you may be able to take courses at home. And if you have a notebook computer, you may even take courses in buses, subways, or wherever you happen to be. Perhaps in the future, because of advances in technology, you may no longer have to go to work. Your job will be done at home on computers. Therefore, _____.

이것은 대화나 담화의 일부분을 듣고 마무리하는 말로 적절한 것 고르기의 유형이다. 여기서는 담화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컴퓨터가 우리의 생활에 미친 영향과 그 중요성에 대한 것이다. 연설자는 21세기의 달라질 교육 환경에 관한 이야기와 노트북을 가지고 있으면 장소에 관계없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컴퓨터의 필요성 및 그 이용방법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부분에는 컴퓨터를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 청자는 computer, computer technology, notebook computer 등을 듣는 부분적 청취는 물론 “For example, with computer technology, you may be able to take courses at home.”과 “And if you have a notebook computer, you may even take courses in buses, subways, or wherever you happen to be.” 와 “ Perhaps in the future, because of advances in technology, you may no longer have to go to work.”의 문장을 듣고 전체적 청취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분석 결과

지금까지 수능 청취문항을 분석해 보았다. 이제 이와 같은 분석을 청취과정, 청취과업, 청취기능별 표로 나타내 보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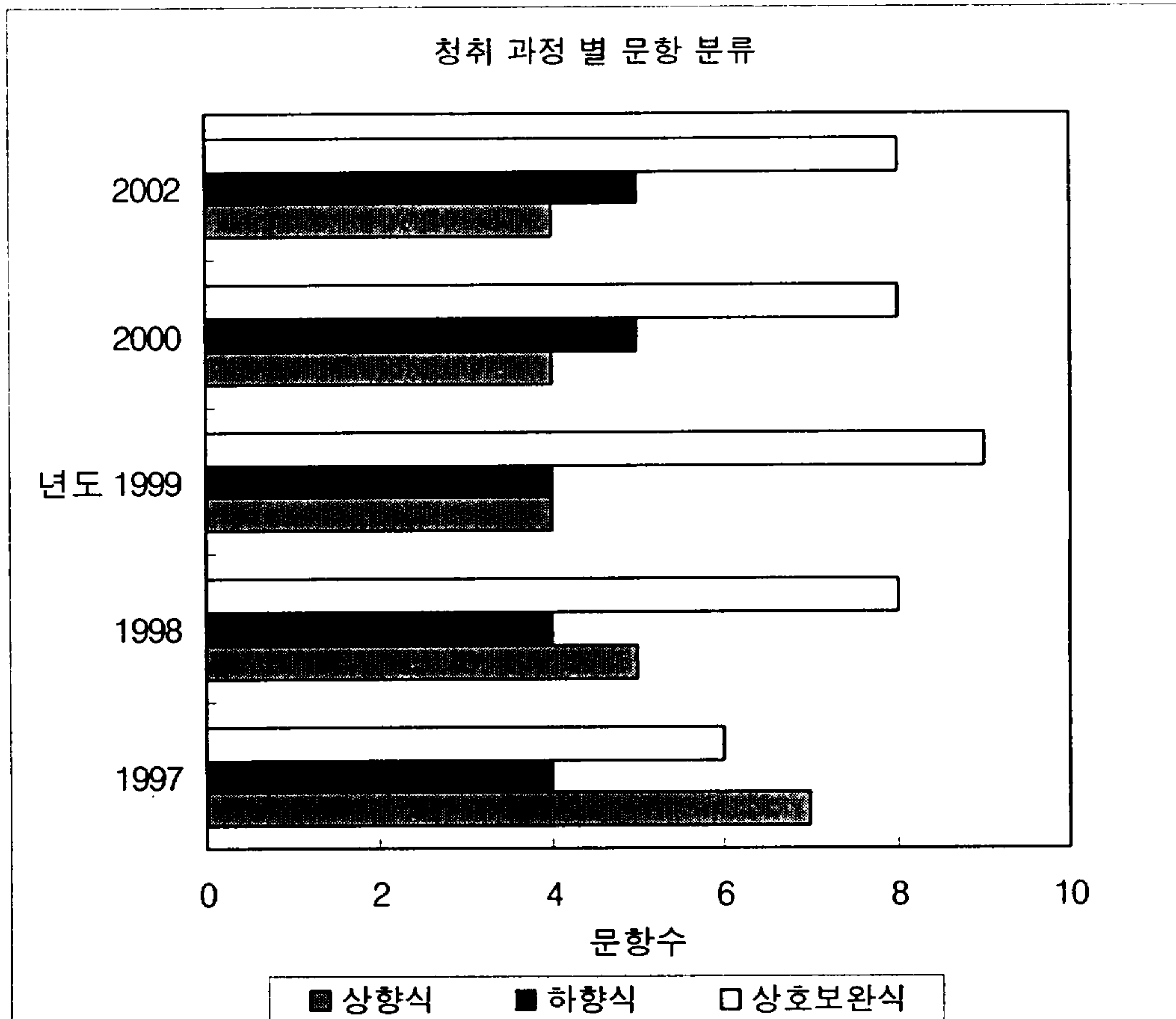
< 표1 >은 청취과정을 분류한 것으로 청취과정을 상향식 과정, 하향식 과정, 상호 보완식 과정의 세 가지로 나누고, 각 년도별로 해당하는 문항번호를 부여하였다.

< 표 1 > 청취과정 별 문항분류

	상향식	하향식	상호보완식
97	1,2,3,5,6,7,9	4,8,10,11	12,13,14, 15,16,17
98	1,2,5,6,10,	3,4,9,11	7,8,12,13, 14,15,16,17
99	1,2,5,7	3,9,10,12	4,6,8,11,13, 14,15,16,17
00	1,2,4,10	3,7,9,12,13	5,6,8,11, 14,15,17
01	1,5,7,8, 9,10,11	2,4,12,13	3,6,14, 15,16,17
02	1,5,8,10	2,4,7,11,13	3,6,9,12, 14,15,16,17
총 문항 수	31	26	45

<표1>에 의하면 전체 과정 중 상호 보완식 과정이 45문항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향식 과정과 하향식 과정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향식 과정과 상호 보완식 과정은 그 구분이 다소 모호하므로 하향식과 상호 보완식의 문항비율을 함께 상향식 문항과 비교하게 되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여 수능이 부분적 이해의 청취보다는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반적 이해 위주의 청취를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 그림 2 > 청취과정별 문항 분류 분포

<그림2>에 의해 년도에 따른 문항 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향식은 1997년의 7문항에서 1998년에는 5문항, 1999년부터는 4문항으로 되어 점

11) 상호 보완식 과정은 상향식 과정과 하향식 과정이 결합된 것으로, 하향식 과정과는 차이를 지니지만, 수능에서는 하향식 과정에서 문항의 난이도 조절을 위해 부분적 청취 요소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상호 보완식 과정과 하향식 과정의 뚜렷한 구분은 다소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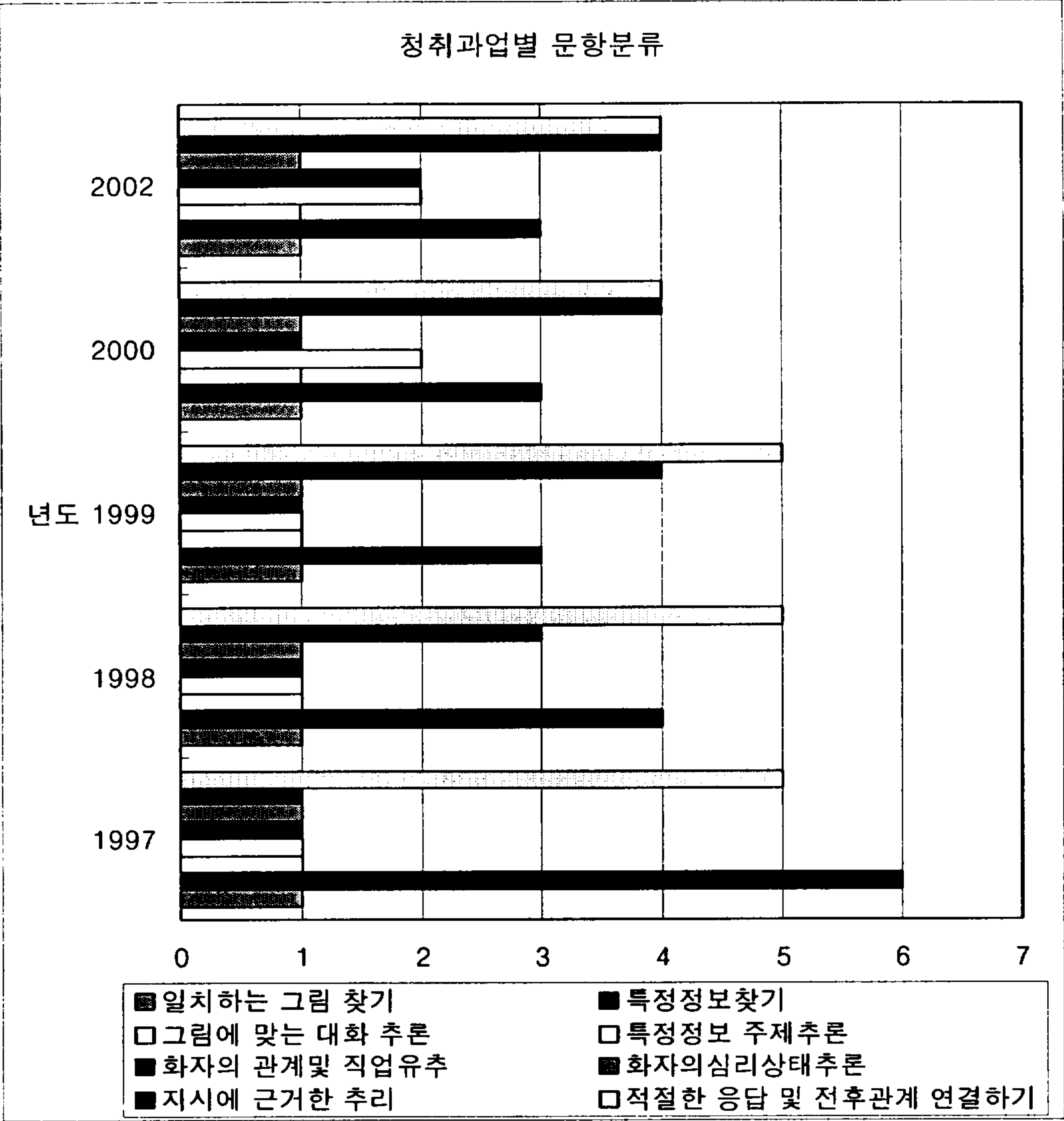
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하향식은 1999년까지는 4문항이었으나, 2000년부터 5문항이 되어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상호 보완식은 1997년 6문항에서 1998년 8문항으로 1999년 9문항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도에는 7문항으로 감소하고 다시 2002년도에는 8문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분적 이해 중심의 청취인 상향식 과정은 감소하고 배경지식이 필요한 전반적 이해 위주의 청취인 하향식 과정이나 상호 보완식 과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¹²⁾ 이제 청취과업 분류표를 통해서 이러한 추세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표 2 > 청취 과업별 문항 분류

	97	98	99	00	01	02	총 문항수
일치하는 그림찾기	1	1	1	1	1.8	1	7
특정정보 찾기	2,3,5 6,7,9	2,5,6,10	2,5,7	2,4,10	5,7,9, 10,11	5,8,10	24
그림에 맞는 대화 추론	10	11	12	13	13	13	6
특정정보 주제추론	4	4	3	7,12	4	4,7	8
화자의 관계 및 직업유추	11	9	9	9	2	2,12	7
화자의 심리 상태추론	8	3	10	3		11	5
지시에 근거한 추리	12	7,8,12	4,6, 8,11	5,6, 8,11	3,6	3,6, 9,12	18
적절한 응답 및 전후관계 연결하기	13,14, 15,16,17	13,14, 15,16,17	13,14, 15,16,17	14,15, 16,17	14,15, 16,17	14,15, 16,17	27

12) 앞으로 01년 문항은 문제가 너무 쉬워서 문제가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므로 변별력에 문제 점을 보였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2>는 청취과업을 그림과 일치하는 것 찾기, 특정 정보 찾기, 그림상황에 맞는 대화추론, 특정 정보 추론, 화자의 직업 및 관계 유추, 화자의 심리상태 추론, 지시에 근거한 추론, 적절한 응답 및 전후관계 연결하기의 여덟 가지로 나누고, 각 년도별로 해당하는 문항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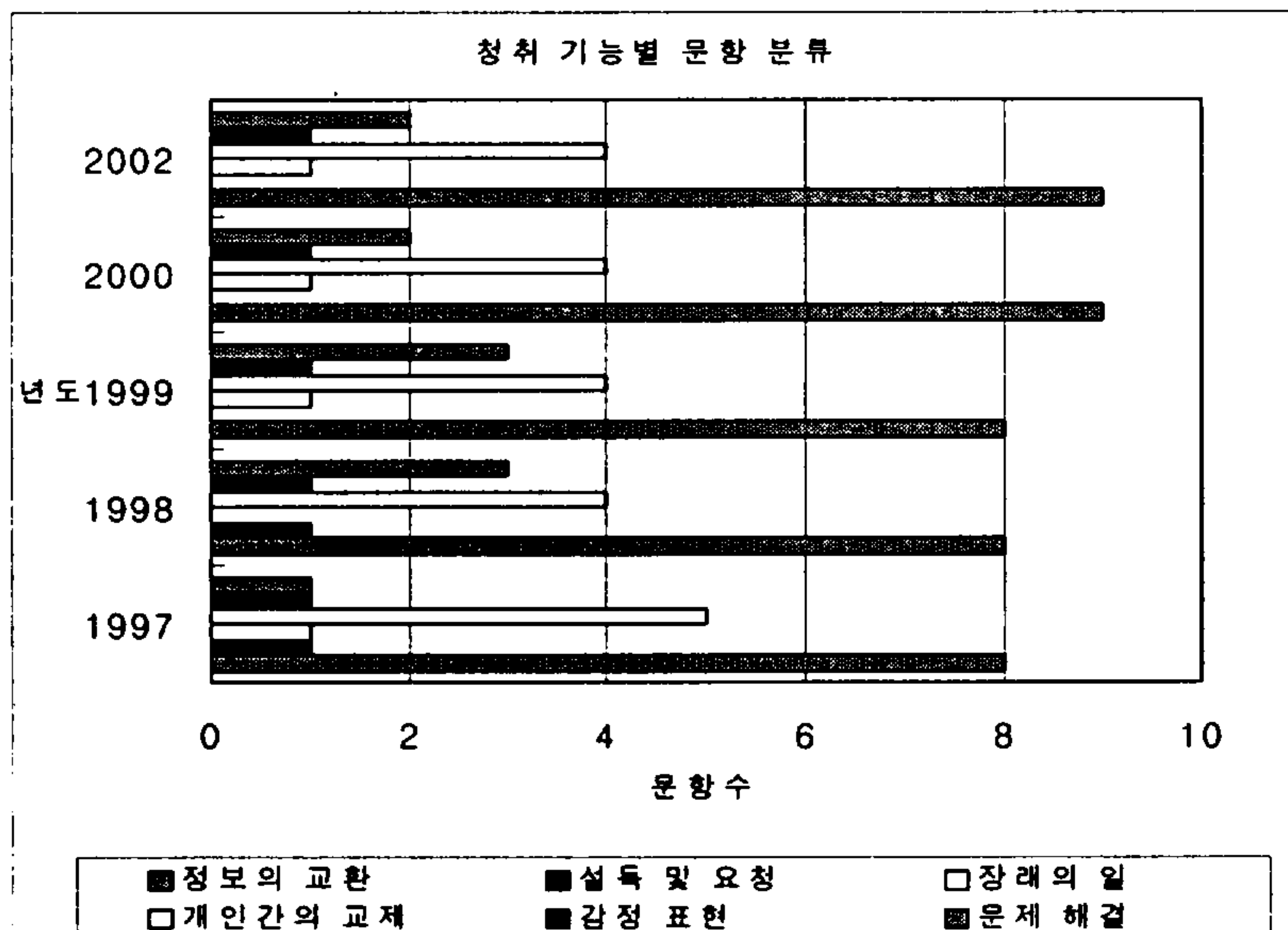
<그림 3> 청취과업별 문항분류 분포

< 그림 3 >에 의하면 청취과업 중 적절한 응답 및 전후관계 연결하기가 27문항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정 정보 찾기와 지시에 근거한 추리가 각각 24문항과 18문항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적절한 응답 및 전후관계 연결하기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5문항이 출제되었다가 2000년부터 4문항이 출제되어 그 문항수가 약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특정 정보 찾기는 1997년의 6문항에서 1998년에는 4문항으로 감소하고 1999년부터는 3문항으로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수능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시에 근거한 추리도 1997년 1문항에서 1998년에는 3문항으로 1999년부터는 4문항으로 많이 증가하였으며 수능에서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특정정보 주제 추론은 2000년도부터 기존의 1문항에서 2문항으로 증가하였으며, 화자의 관계 및 직업 유추는 2002년부터 2문항으로 증가하였다. 그 외에 일치하는 그림 찾기, 그림에 맞는 대화추론, 화자의 심리상태 추론은 매년 1문항씩 출제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점차 수능시험이 그림이나 감정상태 등의 비교적 쉬운 문항보다는 좀 더 어려운 문항의 비율을 늘리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제 수능시험의 청취기능의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표 3 > 청취 기능별 문항 분류

	정보의 교환	설득 및 요청	장래의 일	개인간의 교제	감정 표현	문제 해결
97	1,2,3,4,5,6,10,12	9	7	11,13,14,15,16	8	17
98	1,2,4,5,8,10,11,12	6		9,13,14,15	3	7,16,17
99	1,2,3,5,6,8,11,12		7	9,13,14,15	10	4,16,17
00	1,2,4,6,7,8,11,12,13		10	9,14,15,16	3	5,17
01	1,3,4,7,8,9,10,11,13		5	2,12,14,15,16		6,17
02	1,4,5,6,7,8,9,12,13		10	2,14,15,16	11	3,17
총 문항수	51	2	5	26	5	13

<표 3>은 청취기능을 정보의 교환, 설득 및 요청, 장래의 일, 개인간의 교제, 감정의 표현, 문제의 제기와 해결의 6가지로 나누고, 각 년도별로 해당하는 문항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림 4> 청취기능별 문항 분류

< 그림 4 >에 의하면 정보의 교환이 51문항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개인간의 교제와 문제해결은 각각 26문항과 13문항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정보의 교환은 기존의 8문항에서 9문항으로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개인간의 교제는 1997년의 5문항에서 4문항으로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문제해결은 1997년의 1문항에서 1998, 1999년에는 3문항으로 증가했다가 2000년부터 2002년에는 2문항으로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설득 및 요청과 장래의 일, 감정표현은 각 1문항씩 출제되었는데, 설득 및 요청은 1997, 1998년도에만 출제되었고, 장래의 일은 1998년에는 출제되지 않았다. 청취기능은 전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변화는 없었지만 정보의 교환과 개인간의 교제, 문제해결의 기능이 수능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수능이 학생들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간의 교제와 같은 기능이 수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수능이 정보이해 및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이상적인 관계 및 교제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까지도 평가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것은 < 표 4 >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결론에서는 청취과정, 청취과업, 청취기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전체적인 분포 및 그 성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표 4>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청취 문항 종합 분류

과정	청취 과업	청취 기능	97	98	99	00	01	02	총 계
상향식	일치하는 그림찾기	정보의 교환	1	1	1	1	1,8	1	30 %
	특정 정보 찾기	정보의 교환	2,3, 5,6	2,5, 10	2,5	2,4	7,9, 10,11	5,8	
		선택 및 요청	9	6					
		장래의 일	7		7	10	5	10	
	총 문항수		7	5	4	4	7	4	
하향식	그림에 맞는 대화추론	정보의 교환	10	11	12	13	13	13	25 %
	특정정보, 주제추론	정보의 교환	4	4	3	7,12	4	4,7	
	화자의 관계 및 직업 유추	개인간의 교제	11	9	9	9	2,12	2	
	화자의 심리상태 추론	감정 표현	8	3	10	3		11	
	총 문항수		4	4	4	5	4	5	
상호보 완식	지시에 근거한 추리	정보의 교환	12	8,12	6,8, 11	6,8, 11	3	6,9, 12	45%
		문제 해결		7	4	5	6	3	
	적절한 응답 및 전후 관계 연결하기	개인간의 교제	13,14,15 ,16	13,14 15	13,14 15	14,15 16	14,15 16	14,15 16	
		문제 해결	17	16,17	16,17	17	17	17	
	총 문항수		6	8	9	8	6	8	

5. 결 론

현 영어교육은 과거의 구조주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의사소통을 중시하게 되면서 언어의 네 가지 능력을 통합적으로 교육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의사소통활동은 화자가 말하는 것을 청자가 잘 듣고 이해하여 반응하는 과정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청취가 우선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취에 대한 것을 다루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현 교육과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2장은 청취의 중요성 및 영향요소, 청취과정, 정보처리모델, 청취과업 및 기능에 대해 서술하였다. 각 부분별로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취의 중요성 및 영향요소에서는 청취가 다른 언어기능에 비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청취의 정의 및 전이효과를 통해 살펴보고, 청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둘째, 청취를 상향식 과정, 하향식 과정, 상호 보완식 과정의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청취이해과정을 살펴보았다. 상향식 과정은 언어외적자료를 이용해 부분적 이해를 중심으로 청취를 하는 것이며, 하향식 과정은 언어내적자료를 이용해 전체적 이해를 중심으로 청취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호 보완식 과정은 상향식 과정과 하향식 과정을 종합하여 부분적인 이해와 전체적인 이해를 같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정보처리모델은 상향식과 하향식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청취과정을 정보 처리적 관점에서 다시 정리한 것이다. 넷째, 청취과업 및 기능에서는 그림과 일치하는 것 찾기, 특정 정보 찾기, 그림상황에 맞는 대화추론, 특정 정보 및 주제 추론, 화자의 직업 및 관계 유추, 화자의 심리상태 추론, 지시에 근거한 추론, 적절한 응답 및 전후관계 연결하기의 여덟 가지의 청취과업을 설명하고 이러한 과업을 성

취하기 위해 청자는 위에서 언급한 청취과정을 통해서 청취한 내용의 기능 즉, 정보의 교환, 설득 및 요청, 장래의 일, 개인간의 교제, 감정의 표현, 문제의 제기와 해결 등과 같은 여섯 가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청취 문항을 청취과정, 청취과업, 청취기능의 순서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각 분류표 및 차트로 설명하였다. 상향식 과정은 두 가지 과업과 세 가지 기능으로 분류가 되는데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문항 수의 흐름을 보면 1997년 7문항에서 1998년 5문항, 1999년부터는 4문항으로 문항 수가 점차 감소했다. 청취과업은 특정 정보 찾기가 일치하는 그림찾기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취기능은 보면 정보의 교환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향식 과정은 네 가지 과업과 그에 따르는 세 가지 기능으로 분류되며, 그 흐름은 1997년에서 1999년까지의 4문항에서 2000년과 2002년은 5문항이 되어 약간 증가했다. 청취과업은 특정정보, 주제추론의 과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과업은 서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취기능은 정보의 교환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청취과업의 그림에 맞는 대화추론과 특정정보, 주제 추론이 모두 정보의 교환 청취기능을 지니기 때문이다. 상호 보완식 과정은 두 가지 과업과 그에 따르는 각각의 두 가지 기능으로 분류되는데, 문항 수는 1997년의 6문항에서 1998년 8문항, 1999년 9문항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2000년, 2002년은 8문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청취과업은 적절한 응답 및 전후관계 연결하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청취기능은 개인간의 교제가 문항 수는 가장 많으나 정보의 교환과 문제해결의 각각의 문항 수의 차이는 적은 편이다.

즉, 결론적으로 보면 수능 청취문항에서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청취과정을 년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상향식 과정은 점차 문항 수가 감소하였으며, 하향식 과정은 약간 증가하였고, 상호 보완식 과정은 점차 증가하다가 다소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문항 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상호 보완식 과

정의 문항 수가 가장 많았으며, 하향식과 상호 보완식 과정은 뚜렷한 구분이 어려우므로 이 두 과정을 같이 본다면 그 문항 수에 있어 상향식에 비해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취 과업별 분석을 보면 전체 청취문항 중 적절한 응답 및 전후관계 연결하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정 정보 찾기와 지시에 근거한 추리가 각각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취 기능별 분석에서는 정보의 교환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개인간의 교제와 문제해결이 각각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수능 청취문항이 청취내용으로부터 특정정보를 파악하여 찾아내는 부분적인 청취 이해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같은 종합적인 청취 이해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개인간의 교제와 같은 기능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수능이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이 논문에서는 청자의 청취력 향상을 위한 Underwood (1998)의 청취 전, 중, 후 활동을 통한 청취 지도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청취 전 활동은 청취할 내용에 대한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청자에게 사전정보를 제공 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때 청취내용을 가능한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청자가 청취 중 활동에 대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청취 중 활동은 청자가 청취내용을 들으면서 주요 의미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개발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청취과정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데 각 과정별로 연습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향식 과정에서 청자는 문장에서의 언어외적 요소인 억양, 음소, 강세 구별하기, 빠른 말하기 형태를 인식하기, 정보의 구체적 요점 알아내기 등을 학습할 수 있다. 하향식 과정에서 청자는 언어내적 요소인 감정 인식하기, 화제에 관심을 가지고 화자를 동일시하며 듣기 인식하기, 동기나 주제를 평가하기 위한 듣기, 중심생각과 근거 찾기, 추론하기 등을 학습할 수 있다. 상호 보완

식 과정에서는 이해하지 못한 표현을 파악하기 위해 상향식 과정의 언어 외적 요소를 사용하기, 청자가 실제로 들은 것과 청자가 예측하는 것을 비교하기, 더 복잡한 교재의 이해를 위해 문화적 배경지식 정보와 불완전한 감각자료 (sensory data)를 사용하기,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제공하기 위한 것과 잘못 이해된 부분을 발견하기 위한 것에 대한 지식 사용하기 등을 학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취 후 활동은 청자에게 생각하고 토의하고 쓸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 청자가 내재적인 동기유발이 가능하도록 단순한 청취 확인용 질문 이상의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청취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취문항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학습방향까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도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청취학습을 한다면 청자는 보다 효율적인 청취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_____. (1997). 大學修學能力試驗 解說. 國立教育評價院 [편].

강용덕. (1999). 영어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듣기 평가 유형 중 특정정보 찾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원대 교육대학원.

교육부. (1995). 고등학교 외국어과 교육과정해설(I) : 공통영어, 영어I·II, 영어독해, 영어회화, 실무영어. 대한교과서.

조명원, 이홍수 공저. (1993). 영어교육사전. 한신문화사 .

차경환. (1997).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 시험의 현황 및 듣기학습전략. 영어 교육, 52(2), 265-288.

차경환, 이경민. (1993). Task-based 영어 청취력 교재 분석을 통한 청취력 문항 연구. 영어 교육, 45(1), 13-44.

차경환. (1994).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문항 분석. 영어 교육, 47(1), 49-76.

차경환. (1995). 1994학년도 1,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문항 분석. 영어 교육, 50(2), 209-232.

차경환. (2000). 영어 뉴스 청해 저해 요소 연구. *영어 교육*, 55(1), 201-226.

차경환. (1995). 영어 듣기 지도의 원리. *한양대교육논총*, 10(10), 40-62.

차경환, 이경민. (1994). 영어 청취력 단계별 문항연구. *중앙대 한국교육문제 연구소 논문집*, 9(12), 185-211.

최경신. (1999).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문항분석과 청취력 향상 지도방안*.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 교육대학원.

최진황. (1997).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한국교원대 교원교육*, 13(12), 219-233.

Asher, J., Kusudo, J., & Torre, R. (1974). Learning a second language through commands: The second field test. *Modern Language Journal*, 58(1), 24-32.

Asher, J. J. (1969). The total physical response approach to second language learning. *Modern Language Journal*, 50(2), 3-39.

Barker, L. (1980). An investigation of proportional time spent in various communication activities b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8, 102-109.

- Brown, H. D. (198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Prentice-Hall.
- Carrell, P. L., & Eisterhold J. C. (1983). Schema theory and ESL reading pedagogy. *TESOL Quarterly*, 17(4), 553-574.
- Clarke, H. H., & Clark, E. V. (1977). *Psychology and Language: An introduction to psycholinguistic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Finocchiaro, M., & Brumfit, C., (1983). *The functional-notional approach: From theory to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lisan, E. (1986). Total physical response: A technique for teaching for teaching all skills in Spanish. *Foreign Language Annals*, 19, 419-427.
- Higgs, T. V. & Clifford, R. (1982). The push toward communication. In Higgs, & Theodore (Ed.), *Curriculum, Competence, and the Foreign Language Teacher*.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mpany.
- Horn, E. (1942). Language and meaning, *forty-first year 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Bloomington, IL: Public School Publishing Co.
- Johnson, K. (1979). Communicative approaches and communicative process.

In. C. J. Brumfit, & K. Johnson (Eds.), *The communicative approach to language teaching* (pp. 192-20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rashen, S. D. (1987).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rentice-Hall International.

Krashen, S. D., & Terrell, T. D. (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Pergamon Press.

Krashen, S. D.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Press.

Krashen, S. D. (1977). The monitor model for adult second language performance. M. Burt, H. Dulay, & M. Finocciaro (Eds.). *In viewpoints o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Y: Regents Publishing Co.

Lenneberg, E. (1967). *The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 NY: John Wiley and Sons.

McLeod, B. (1983). Second language learning : An information-processing perspective. *Language Learning*, 33, 135-158.

McLeod, B., & McLaughlin, B. (1986). Restructuring or automaticity? Reading in a second language. *Language Learning*, 36, 109-123.

Morley, H. J. (1972). The use of films in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Part III. *Language Learning*, 22(1), 99-110.

Morley, H. J. (1991). Listening Comprehension in second/foreign Language instruction.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MA: Heinle & Heinle Publishers.

Nagle, S. J., & Sanders, S. L. (1986). Comprehension theory and second language pedagogy. *TESOL Quarterly*, 20(1), 9-25.

Peterson, P. W. (1991). A synthesis of methods for interactive listening. M. Celce-Murcia (2nd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MA: Heinle & Heinle Publishers, 106-122.

Postovsky, V. A. (1975). On paradoxes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Modern Language Journal*, 59, 18-21.

Richards, J. C. (1990). *Listen carefull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ichards, J. C. (1983). Listening comprehension: Approach, design, procedure. *TESOL Quarterly*, 17(2), 219-239.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ivers, W. M., & Temperley, M. S. (1978). *A practical guide to the teaching of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NY: Oxford University Press.

Underwood, M. (1989). *Teaching listening*. New York: Longman.

Van Dijk, T., & Kintsch, W. (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NY: Academic Press.

ABSTRACT

An Analysis of the English Listening Items on the Korean Scholastic
Aptitude Tests(KSAT) for College Entrance

Yoon, Ki-Youn

Major in English Language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These days, English plays a very important part in Korean lives as the uni- versal language of the world. Koreans further become interested in English education. This thesis deals with the listening theory and the analysis of English listening items on the Korean Scholastic Aptitude Tests(KSAT) utilized for the admissions of students into Korean universities. This thesis also suggests desirable listening revisions based on the results analysis.

Listening is a very complicated process which differs from simply hearing. It is suggested that listening is the most important of the four skills of language learning. The reason is that listening activity consists of 45% of adults' communication activities and it has great transition effect on other language skills.

The listening activity is influenced by five primary factors such as delivery rate, difference between written and spoken language, vocabulary or grammatical knowledge, use of background knowledge and affective

factors(Cha, Kyung -hwan, 2000).

Listening processing is divided into bottom-up processing, top-down processing, and interactive processing. Bottom-up processing is evoked by external sources such as sounds, words, grammatical relationship or lexical meaning. Top-down processing is evoked by internal sources such as prior knowledge and global expectation's prediction. Interactive processing combines bottom-up processing with top-down processing .

According to Peterson(1991), listening comprehension can best be understood through the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According to the model, raw speech first enters the sensory stores, when it enters the mind as acoustic data and is taken into short-term memory(STM). It must be analyzed into syntactic constituents, converted into semantic units(propositions), and related to other propositions in the long-term memory(LTM) store.

The listeners become to understand listening functions and employ listening tasks through listening contents. According to Cha, Kyung-hwan(1995) and Underwood(1998), listening tasks are as follows: selecting the correct picture based on what is heard, finding details, inferring the dialogs appropriate to the picture situations, inferring the detailed information, inferring speakers' job or relationship, inferring speakers' a mental state, inferring based on instruction, and filling the appropriate responses or the missing information. Celce-Murcia(1991) and Finocchiaro(1983) describe listening functions as follows : information exchanges or suasion or asking, future scenarios, interpersonal exchange, feelings and solving problems.

This thesis analyzes English listening items of Korean Scholastic Aptitude

Tests(KSAT) from 1997 to 2002 in terms of listening processing, listening task and listening func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bottom-up processing decreases gradually and top-down processing increases slightly. Interactive processing increases gradually and then decreases slightly.

The most frequently used listening tasks are filling the appropriate responses or the missing information, finding details and inferring based on instructions. The largest percent of the tasks is filling the appropriate responses or the missing information followed by finding details and inferring based on instruction, respectively.

The most frequently used listening functions are information exchange, interpersonal exchange and solving problem. The largest percent of the functions is information exchange followed by interpersonal exchanges and solving problems, respectively.

The above shows that English listening items of KSAT measure students' both selective listening comprehension ability such as finding detailed informations and global listening comprehension ability such as solving problems. Moreover, the ultimate goal of KSAT is to cultivate communicative competence.

In conclusion, to improve listening comprehension ability of listeners, this thesis suggests appropriate instructions through pre-listening, during-listening and after-listening activities based on underwood(1998).